

## 한국 다케시마(竹島) 교육의 현황과 그 문제점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 제 1 절 서 론

(1) 다케시마 문제와 한국의 독도교육

제 2 절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제 3 절 『동국문헌비고』(「여지고(輿地考)」)와 신경준(申景濬)의 『강계지(疆界誌)』

(1)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 대해서

(2) 신경준의 『강계지』와 이맹휴(李孟休)의 『춘관지(春官志)』

제 4 절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와 『팔도총도(八道總圖)』의 우산도

제 5 절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

(1)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2)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

제 6 절 태정관(太政官) 지령과 '다케시마 외 한 섬(竹島外一島)'

제 7 절 「칙령 제 41 호(勅令第四十一號)」의 석도(石島)에 대해서

맺는 말

## 제 1 절 서 론

다케시마(한국명, 독도)가 일한(日韓) 간 계쟁(係爭,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장이 된 지 어느덧 반세기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대응에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1905 년에 다케시마를 일본령(領)으로 편입한 것을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 침략의 최초 희생물”이라 하여, 일본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다케시마 문제를 ‘역사문제’로 인식해 왔다. 이에 반해 다케시마 문제를 ‘영토문제’로 본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을 최종적인 외교목적으로 하며, ‘국제법’을 존중한 외교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다케시마 문제를 ‘역사문제’로 규정한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의사는 없었다. 그것은 1954 년 9 월 25 일,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10 월 28 일, 각서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려는 일본정부의 제안은, 사법적 포장에 의한 허위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계책에 불과하다”, “독도는 일본 침략으로 희생된 최초의 한국영토”라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위탁을 거부한 사실에서도 명확하다. 그러한 한국에게 일본정부는 1962 년과 2012 년에도 국제사법재판소 위탁을 제안했지만, 한국정부에 의해 거절되었다. 국제법을 중시한 일본정부와 다케시마 문제를 ‘역사문제’라고 인식한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쟁점이 맞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언제까지나 평행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2011 년경부터 초·중·고등학생에게 ‘독도교육’ 체제를 확립시키고, 그 교육지원체제를 정비해 왔다. 이에 반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다케시마 문제를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에 기재한 것은, 2017 년인 헤이세이(平成) 29 년도판이 처음이다. 하지만 외교가 담보 상태에 있는 와중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학습지도요령』을 선행하게 한 것은 한국을 선불리 자극할 뿐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다케시마 교육 부교재로 『독도 바로 알기』를 개발하여 수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2011 년에 부교재가 개발된 이래, 2013 년판, 2015 년판, 2016 년판, 2017 년판 등 재판을 거듭했으며, 교사용 학습지도안으로 『교수 · 학습과정안 및 학습지』와 참고자료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2011 년)도 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다케시마 교육은 이제 겨우 본궤도에 올랐을 뿐이다. 일본에서는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어도, 한국과 같이 다케시마 교육을 위한 부교재도 없거니와, 학습지도안인 『교수 · 학습과정안 및 학습지』나 다케시마 교육 참고자료인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케시마 교육방침만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교단에 선 일본 선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우왕좌왕 헤맬 뿐이다.

그래서 본 소책자에서는 2016 년판 고등학생용 『독도 바로 알기』의 역사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도교육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 개요와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 (1) 다케시마 문제와 한국의 독도교육

2017 년도판 고등학생용 『독도 바로 알기』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하부조직인 독도연구소 사이트에 게재되어, 누구라고 열람할 수 있다. 장(章)의 구성방식은 '옛 기록에 나타난 독도', '일본도 인정한 조선시대 독도', '고지도에서 찾은 우리 영토 독도', '근대 독도와 일본의 독도침탈' 등 10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량은 86 페이지에 이른다.

그것도 2017 년도판 『독도 바로 알기』(초 · 중 · 고등학생용)가 개정판으로 공개된 것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7 년도판 『학습지도요령』안(案)에 처음 다케시마 문제를 기재한 다음 달이었다. 이 개정판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지만, 한국의 민첩한 대응과 높은 전략적 대응 능력은 일본에 비할 바가 못된다.

이것은 2008 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9 년도판 『중학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中學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編)』에 다케시마 문제를 다루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후 일본

사회교과서에 다케시마 문제를 기재하기 시작하자, 2011년 2월 한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공표하고, 그 해 12월에는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케시마 교육 부교재 『독도 바로 알기』와 중학생용 『영원한 우리 땅 독도』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한국정부의 대응이 빠르고 빈틈이 없는 것은 다케시마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도 바로 알기』도 <동북아역사재단>이 지금까지 정리해 온 『일본인이 모르는 10 가지 독도의 진실』(동북아역사재단, 2011년)과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그리고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국립중앙박물관, 2006년) 등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것도 한국이 독도교육 부교재를 개발한 것은, 2008년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지리적 분야」·「역사적 분야」·「공민(公民)적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다케시마에 관련하여 기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북방영토(하보마이 군도(齒舞群島)·시코탄 섬(色丹島)·구나시리 섬(国後島)·이투루프 섬(択捉島))나 다케시마에 관해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키는 것과 함께, 이 섬들이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과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게 누차에 걸쳐 항의하는 등을 정확히 다루어,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깊게 시킬 필요가 있다. (「지리적 분야」, p.49)

'영토 확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확정을 비롯해, 류큐(琉球, 현 오키나와) 문제나 홋카이도 개척을 다룬다. 이 때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케시마, 센카쿠 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역사적 분야」, p.99)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에 관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점이나, 현재에 이른 경위 및 일본이 정당히 주장하는 입장, 일본이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킨다. (「공민적 분야」, p.141)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지도방침이다. 그것도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킨다”는 것과 같은 취지를 서술하는데 머물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천적 독도교육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억제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인식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이 독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을 올바르게 안다면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일본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일본 이상으로 긴밀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1 년도판 『영원한 우리 땅 독도』, 중학생용)

한국의 독도교육은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인식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이고 교묘한 방침이라 하겠다. 하지만 일본의 다케시마 교육 실태는 한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리들도 일본 이상으로 긴밀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만큼, 긴밀하거나 지속적이지 않다. 이를 한국에서는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이 독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과잉적으로 반응하여 개발한 것이 바로 부교재 『독도 바로 알기』이다. 이러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사인식’이 2011 년도판 『독도 바로 알기』(고등학생용) 권두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한 적이 있으며,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다음 세대를 짊어질 초·중·

고등학생들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득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일본인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독도교육 목적은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교육받은 일본인에게 독도(다케시마)가 한국령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부교재 『독도 바로 알기』 이외에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및 학습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우리 영토 독도를 만나다』가 개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어떠한 논리로 독도(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삼국사기』, 『동국문헌비고』, 『세종실록』 「지리지」, 『팔도총도』,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태정관 지령」, 「칙령 제 41 호」 등을 근거로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해 왔다. 그래서 이하, 한국이 근거로 한 문헌에 대하여, 과연 『독도 바로 알기』에서 서술된 문헌 해석은 타당한 것인지, '옛 기록에 나타난 독도'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 제 2 절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다케시마(독도)는 6 세기부터 한국령이었다"고 말해 왔다. 이 때 한국이 근거로 삼은 것은 『삼국사기』이다. 『독도 바로 알기』의 '옛 기록에 나타난 독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울릉도·독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1145 년)에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신라 때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신라에 복속시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우산국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 즉 오늘날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동국문헌비고』(1770년)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영토이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울릉도와 독도』)

여기서 『독도 바로 알기』가 제시한 문헌은 『삼국사기』(『신라본기』)의 ‘지증왕 13년(512년)조(條)’와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이다. 『삼국사기』의 ‘지증왕 13년조’에는 확실히 “우산국을 정복하다”고 하여, ‘우산국’이 신라에게 복속했다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그 우산국에 “오늘날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 것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이다.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울진현조(蔚珍縣條)’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영토이다”고 한 분주(分註)를 근거로,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그 우산을 ‘오늘날 독도’라고 해석하고, ‘우산국’(울릉도)에는 독도(우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신라본기』)의 ‘지증왕 13년조’를 근거로, 독도는 6세기부터 한국령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1770년에 편찬된 문헌에 비추어, 1145년에 성립된 『삼국사기』에 기술된 우산국에 “오늘날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를 증거로 삼는 것은 졸속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동국문헌비고』에 대한 문헌 비판을 하고, 동시에 그 논거가 된 『동국문헌비고』의 분주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울진현조’를 확인해 보니,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여지지(輿地志)에서 말하는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 우산은 즉 왜(倭, 일본)의 소위 마쓰시마(松島)이다.

여기 분주를 보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서는 『여지지』라는 다른 문헌을 인용하여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영토이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분주의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영토이다” 앞부분만 의거하고, 뒷부분인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는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가 독도(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는 한국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라는 문구는, 1696년 6월 돗토리번(鳥取藩)으로 밀항한 안용복(安龍福)이 귀환 후 조선정부의 심문에서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 이것 또한 조선 땅이다”고 했던 공술에서 유래한다. 그 때문에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우산국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 즉 오늘날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논거가 17세기 말 밀항자의 공술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 신빙성이 의심받는 걸 염려했을 것이다. (안용복의 증언이 위증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안용복의 공술과 다케시마 문제』 (시마네현(島根県) 총무부 총무과) 참조.

더욱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울진현조’ 분주에 “여지에서 말하는”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해당 부분을 『여지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지지』는 유형원(柳馨遠)이 1656년에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로,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656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에, 40년 후 안용복 공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현존하는 『동국여지지』의 ‘울진현조’에서 확인해 보면, 그곳에는 ‘일설에 우산과 울릉이 본래 같은 섬’이라는 기사(記事)는 있으나,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에 있는 것과 같은 기술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달리 말해 『독도 바로 알기』가 논거로 든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는, 『동국문헌비고』(「여지고」)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가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를 유일한 논거로서 우산도를 독도로 하여, 다케시마를 6세기부터 한국령으로 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분주의 문구는 원전인 『동국여지지』(「울진현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우산국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 즉 오늘날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이 없어지고, ‘독도는 6세기부터 한국령’으로 하는 주장 또한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독도 바로 알기』에서 “독도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1145 년)에 나온다”고 한 『삼국사기』에는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의 ‘지증왕 13 년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3 년 여름 6 월, 우산국을 정복하여, 매년 토산물을 조공하도록 했다.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동쪽 바다 위에 있는 섬나라로, 다른 이름은 울릉도. 사방 백리.

『삼국사기』의 ‘지증왕 13 년조’에서 『독도 바로 알기』가 인용한 것은, 처음 “13 년 여름 6 월, 우산국을 정복하다”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기술은 그 후반부에 있다. 그곳에는 우산국의 강역(疆域,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사방 백리’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삼국사기』의 (‘지증왕 13 년조’)에서 우산국을 ‘사방 백리’라고 표기한 것은, 그 행정구역 넓이가 행정단위인 ‘군현(郡縣)’에 해당하는 정도이기 때문으로, ‘사방 백리’는 ‘군현’의 넓이를 나타내는 상투적인 말이다. 또한 ‘다른 이름은 울릉도’로 한 것은 우산국이 울릉도 한 섬(一島)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삼국사기』의 ‘지증왕 13 년조’에는 현재 다케시마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3 세기에 성립한 『삼국유사』의 ‘지철노왕(智哲老王)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지철노왕조’에서는, 우산국의 강역을 ‘주회(周回) 2 만 6 천 7 백 30 보’(1 보(步)는 약 1.6m)로 명기되어 있다. 여기서 주회는 우산국 주위가 ‘2 만 6 천 7 백 30 보’였던 것으로, 울릉도 일주(一周, 한 바퀴)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 ‘주회 2 만 6 천 7 백 30 보’(약 43 킬로) 안에는 당연히 다케시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케시마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90 킬로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삼국사기』의 ‘지증왕 13 년조’에 의거하면서, 우산국 강역이 ‘사방 백리’였던 사실이나, 우산국 강역을 ‘주회 2 만 6 천 7 백 30 보’로 한 『삼국유사』 기술은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방 백리’와 ‘주회 2 만 6 천 7 백 30 보’는 우산국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불편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독도 바로 알기』는 이러한 불편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동국문헌비고』(‘울진현조’)의 분주(“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영토이다”)만을 인용하여, “우산국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 즉 오늘날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저본(底本, 번역이나 고정한 때의 원본)이 되었던 신경준의 『강계지』 또한 문헌 비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즉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서는 어째서 『동국여지지』의 ‘일설에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하나의 섬’이라고 되어 있던 문구가,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라고 바꿔 쓰이게 된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에 다음 장에는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저본이 되었던 신경준의 『강계지』와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제 3 절 『동국문헌비고』(「여지고(輿地考)」)와 신경준(申景濬)의 『강계지(疆界誌)」

#### (1)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 대해서

『동국문헌비고』(「여지고」)는 1770 년에 편찬된 정서(政書, 관선지지(官撰地誌))의 일종이다. 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가 신경준의 『강계지』(1756 년 성립)를 저본으로 한 사실은, 『영조실록』(영조 46 년 윤 5 월 신유(辛酉)조)에 “상(上, 영조), 문헌비고가 이루어진 것은 신경준의 강역지(疆域誌)에 의거한 것이라 하여, 특별히 가자(加資, 조선시대에 품계를 올리거나 혹은 정 3 품 이상의 품계를 말함)하라고 명했다”고 한 것에서도 명백하다. 그래서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해당 부분을, 신경준의 『강역지』(이후, 『강계지』)에서 확인하면,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신경준에 의한 안어(按語, 책의 최종 편집자가 붙인 것)가 기록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지지(輿地志)에는 “일설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본래 같은 섬”이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도나 지지(地志)를 보면, 두 섬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아마도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둘 다 우산국 땅일 것이다.

여기 안에서 명백한 사실은, 신경준이 유형원의 『동국지리지』로부터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일설에 우산과 울릉이 본래 같은 섬’만이며, ‘하지만’ 이하 부분은 신경준의 사견(私見)이라는 것이다. 사실, 유형원의 『동국지리지』를 확인하면, 그곳에는 “일설에 의하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 섬이다”라고 있을 뿐, ‘울릉 ·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라고도,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 인용된 『동국여지지』에서는 “울릉 ·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고 되어, 우산도와 울릉도는 별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 인용된 『동국여지지』에는, 본래 기술될 리가 없는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는 1696년에 돛토리 번에 밀항하여, 귀환 후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고 한 안용복의 공술에 유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656년에 성립한 『동국여지지』에 기재된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에는, 어째서 원전에는 존재할 리 없는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가 가필된 인용문으로 고쳐 쓰였는가? 그 원인은 신경준의 안에서 있다. 신경준은 그 안에서 『동국여지지』로부터 ‘일설에 우산과 울릉이 본래 같은 섬’이란 한 문장을 인용한 후, 계속해서 “하지만 모든 지도나 지지를 보면, 두 섬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아마도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둘 다 우산국 땅일 것이다”고 사건을 덧붙였다.

그것이 나중에 서술한 바와 같이, 신경준의 『강역지』를 저본으로 『동국문헌비고』(「여지고」)를 편찬한 과정에서, 신경준의 사견이 분주 안에 잘못 섞여 들어가 버린 것이다. 하지만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는, 한국에 있어서 우산도를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하는 유일한 문헌이었다. 그 유일한 논거가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편찬 과정에서 개찬(改竄,

글자를 고침)되었다고 한다면, 문헌이나 고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를 독도로 하는 한국의 논거가 와해되는 만큼, 한국정부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권원(權原, 권리를 얻는 원인 또는 법률상 사물이 정당화되는 이유)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한국에서는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개찬설(分註改竄說)」이 나오자, 『동국문헌비고』와는 별개로 『만기요람(萬機要覽)』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근거로, 우산도를 독도로 하는 증거로 댄 것이다. 그리고 『독도 바로 알기』 또한 그 예를 모방해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에 의거하여, 우산도를 독도로 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만기요람』의 기사(記事)는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인용문이며, 『증보문헌비고』는 1908 년에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한 것이다. 어느 것이나 우산도를 오늘날 독도로 하는 근거 능력은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신경준은 『강계지』에 안어를 덧붙였던 것일까? 다음에 신경준의 『강계지』와 그 저본이 된 이맹휴의 『춘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2) 신경준의 『강계지』와 이맹휴(李孟休)의 『춘관지(春官志)』

몇 번이나 되풀이 해서 말하지만,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울진현조'는 한국이 고문헌이나 고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를 독도로 하는 유일한 문헌이었다. 그곳에는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라고 한 분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분주는 『강계지』 중에서, 신경준이 "모든 지도나 지지(地志)를 보면, 두 섬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아마도 두 섬은 둘 다 우산국일 것이다"라는 안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안어에는 1696 년에 안용복이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고 말한 공술(供述)에 유래한 기술이 있으며, 그것이 『동국문헌비고』(「여지고」) 분주에서는 1656 년에 성립한 『동국여지지』에서의 인용문 일부분으로 되어 있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신경준은 안어에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와 안용복의 공술에 유래하는 문구를 가필했던 것일까? 그것은 신경준의 『강계지』에 수록된 「울릉도」와 「안용복사(安龍福事)」가, 이맹휴가 영조의 명으로 편찬한 『춘관지』(1745 년 성립)의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를 베꼈기

때문이다. 신경준은 이맹휴가 「울릉도쟁계」에 기록된 견해와 다른 부분에, 자신의 안어를 덧붙인 것이다.

신경준의 안어에서 “하나는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아마도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둘 다 우산국 땅일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이맹휴의 『춘관지』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 섬(울릉도)은 대나무(竹)가 나는 까닭에 죽도(竹島, 일본어로 다케시마)라 이르고, 세 봉우리가 있는 까닭에 삼봉도(三峯島)라 한다. 우산, 우릉(羽陵), 울릉, 무릉(武陵), 의죽도(磯竹島)로 말한 것은 모두가 와음(訛音)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맹휴는 울릉도에 대해서 대나무가 나기 때문에 죽도(竹島)라고 하고, 삼봉도라고 칭했다고 하며, 우산도, 우릉도, 울릉도, 무릉도, 의죽도는 음호(音號)가 전화(轉訛)한 것으로, 어느 것이나 울릉도라고 말하고 있다. 신경준은 우산도를 울릉도의 별명(別名)으로 하는 이맹휴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안어에서 “하지만 모든 지도나 지지(地志)를 보면, 두 섬이다”고 하며,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던 것이다. 다만 우산도를 울릉도로 하는 이맹휴에 반해서, 신경준이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섬으로 해석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울릉도를 그린 당시 지도에는 확실히 우산도와 울릉도는 각각의 섬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신경준은 안어 중에 “하지만 모든 지도나 지지(地志)를 보면, 두 섬이다”고 한 것이다.

이 지도는 1696 년, 돛토리 번에 밀항한 안용복이 돛토리 번주와 교섭해서 우산도와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시켰다고 공술한 것에서 비롯된다. 안용복의 밀항사건을 계기로, 조선정부에서는 수토사(搜討使)를 울릉도에 파견하게 되었고, 그 때 수토사들은 울릉도의 지리적 특징을 그린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을 작도(作圖)해서 울릉도와 그 주변 모습을 복명했다. 이 『울릉도도형』 중에서, 후세 울릉도 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 1711 년에 울릉도를 답사한 박석창(朴錫昌)의 『울릉도도형』이다. 『울릉도도형』에다 현재 죽서(竹嶼)에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한 이후, 울릉도 동쪽에는 우산도가 그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된 우산도는 현재 독도가 아니었다. 그 사실은 1694년, 관명(官命, 정부의 명령)으로 울릉도를 답사한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는, 울릉도 '동쪽 5 리'(약 2 킬로, 조선의 1 리는 약 400 미터)에는 '해장죽(海長竹, 바닷가에서 자라는 대나무 일종)'이 무성한 소도(小島, 작은 섬)가 있고, 더욱이 울릉도 '동쪽 3 백리'(약 120 킬로)에는 울릉도의 삼분의 일 정도 크기의 섬이 있다고 복명하고 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그와 같은 큰 섬을 현재의 독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한상이 울릉도 동쪽 5 리(약 2 킬로)에 있다고 한 소도가 독도가 아니었던 것은 자명하다. 장한상의 울릉도 답사로부터 17년 후, 수도사로 울릉도에 간 박석창도 『울릉도도형』 중에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한 소도를 그리고, 그 소도에는 '해장죽전(海長竹田)'이라고 부기(付記)하고 있다.

장한상은 울릉도 '동쪽 5 리'(약 2 킬로)에 있는 소도에는 '해장죽'이 무성하다고 했고, 박석창도 『울릉도도형』에서 '이른바 우산도'로 본 소도에 '해장죽전'을 부기(付記)했다. 여기에서 '해장죽전'에 있는 전(田)은 논이 아니라 밭이라는 의미로, 우산도에는 해장죽이 군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박석창이 '소위 우산도'로 본 소도와, 장한상이 울릉도 '동쪽 5 리'(약 2 킬로)에 있다고 한 소도는 같은 소도다. 이 소도를 현재 울릉도의 딸린 섬에 맞춰 보면, '해장죽'이 무성하고, 울릉도 '동쪽 5 리' 조건에 합치하는 소도는 죽서이다. 『울릉도도형』에서 '소위 우산도'로 되어, 나중에 우산도로 표기하게 된 이 소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서였던 것이다.

안용복의 밀항사건 이후, 조선시대 후기 울릉도 지도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라고 표기된 소도가 그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이후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여지도(輿地圖)』, 『광여도(廣輿圖)』 등에도, 박석창이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한 소도를 따라 '우산도'라고 표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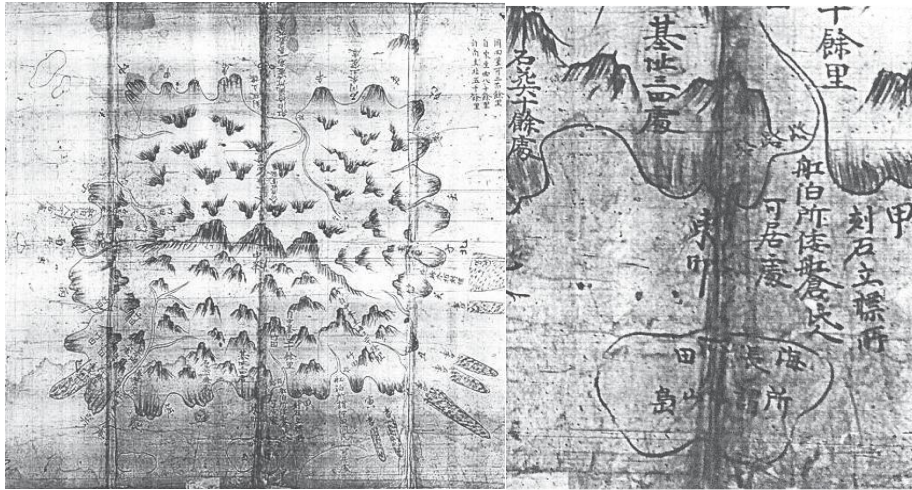


사진 ①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오른쪽은 확대사진

신경준이 『강계지』 안에서 “모든 지도나 지지(地志)를 보면, 두 섬이다”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이후, 울릉도에는 그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지게 되었다.

문제는 이 우산도(죽서)를 신경준이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라고 억단(臆斷, 억측에 의한 판단)한 점에 있다.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소위 우산도’라고 된 우산도에는 마쓰시마(에도시대의 다케시마(竹島)의 호칭)에는 없는 해장죽이 군생하고 있으니,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 그려진 우산도가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을 신경준이 죽서를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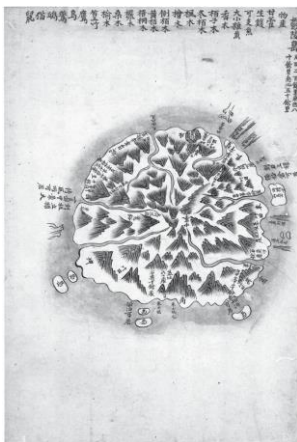


사진 ② 『해동지도』(이찬(李燦) 『한국 고지도』 수록)

그것은 성해응(成海應)이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에서, “안용복 전(傳), 이맹휴가 쓴 춘관지에 실다”고 한 바와 같이, 신경준은 이맹휴의 『춘관지』(「울릉도쟁계」)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다. 신경준은 『춘관지』의 「울릉도쟁계」를 『강계지』에 옮길 때 「울릉도」와 「안용복사(安龍福事)」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다.

신경준이 새롭게 「안용복사」 항목을 만든 것은 안용복의 사적에 관심이 있어서이다. 그것은 이맹휴의 『춘관지』(「울릉도쟁계」)에서도 듯토리 번으로 밀항한 안용복이 귀환 후,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 이것 또한 조선 땅이다”라고 한 공술이 실려 있으며, 안용복을 영웅시하는 기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준은 안용복의 공술을 신뢰하여, 『강계지』 안어에 “하나는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아마도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둘 다 우산국이다”고 하여, 우산도를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맹휴의 『춘관지』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의 별칭으로 하고 있었다.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고 말한 안용복의 공술에 맹종한 신경준은, 이맹휴가 울릉도를 우산도로 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며, 안어를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 이것 또한 조선 땅이다”라고 한 안용복의 공술은 위증으로, 안용복이 말한 우산도는 마쓰시마가 아니었다.

1696년 6월, 안용복이 오키섬(隱岐島)으로 밀항해 왔을 때의 전말을 기록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겐로쿠(元祿, 1688-1704) 9 병자년 조선배가 해안도착 1 권 각서(覺書)』)에 의하면, 안용복은 자신이 지참한 조선 지도를 근거로, 조선 강원도에는 다케시마(竹嶋, 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부속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후술한 것처럼, 그 ‘조선 지도’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이전의 지도로, 그곳에 그려진 우산도는 마쓰시마(다케시마)가 아닌 또 하나의 울릉도였다.

이것을 안용복은 귀환 후, 조선정부의 조사에서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 이것 또한 조선 땅이다”고 공술했던 것이다. 신경준은 이러한 안용복의 공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계지』(「울릉도」) 안어에 “하나는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로, 아마도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둘 다 우산국이다”고 자신의 의견을 써 넣었다.

이러한 신경준의 사건은 『동국문헌비고』(「여지고」)가 편찬된 과정에서, 『동국여지지』에서의 인용문과 같이 고쳐 쓴 것이다.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에 관련한 김치인(金致仁)은, 그러한 경위 일부를 “(신)경준 초창(草創)하고 (홍)계희가 윤색함”(『승정원일기』, 영조 46년 윤 5월



2 일조)이라고 전하고 있다. 『강계지』(「울릉도」) 안어는, 편찬할 때 홍계희(洪啓禧)의 손에 의해 윤색되어, 『동국여지』의 인용문으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우산도는 이맹휴가 쓴 『춘관지』에서는 울릉도였다. 그것이 신경준의 『강계지』(「울릉도」)를 거쳐,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서는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고 개찬(改纂)되었다. 이 사실은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를 유일한 논거로 하여, 문헌이나 고지도에 있는 우산도를 독도로 바꿔 읽어 온 한국에 있어서는 우산도를 현재 독도로 하는 문헌이 없어서 버린, 말하자면 독도는 한국령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안용복이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 이것 또한 조선 땅이다”라고 공술하기 이전의 우산도는, 과연 어느 섬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

제 4 절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 『팔도총도(八道總圖)』의 우산도

2016 년도판 『독도 바로 알기』(「사료에 나타난 독도」)에서는, 한국 문헌에 나타난 우산도를 독도라고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료에는 울릉도에서 우산도(독도)가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옛 기록이나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 사료에는 울릉도에서 우산도(독도)가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오랜 전부터 우리 선조(先祖)가 독도를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 우리 선조는 독도를 알고 있었을까? (「생각을 열다」)

여기에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옛 기록이나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 문헌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81 년에 『동국여지승람』이 성립하고, 1530 년에 증보되어 『신증 동국여지승람』이 됨)에 수록된 「팔도총도」이다. 어느 것이나 우산도에 관련한 기술이 있으며,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산도에는 두 개의 우산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별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1696년에 안용복이 “마쓰시마는 즉 우산이다”라고 공술한 우산도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등에서는 그것을 울릉도 동쪽 약 2 킬로에 있는 죽서라고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독도 바로 알기』가 “울릉도에서 우산도(독도)가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우산도로, 그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조’에 보이는 우산도이다.

한국정부에서는, 근래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에,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활짝 갠 날에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고 한 점에서, “멀리 바라다 보인다”를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로 해석하여, 우산도를 독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국문헌비고』(「여지고」)의 분주(“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의 ‘개찬설(改竄說)’이 나오고 나서 더욱 확고해 졌다. 다케시마를 점거한 한국으로서는 점거의 정당성을 갖는 새로운 논리 창출에 쫓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찬설’의 시작은 1996년부터 1998년에 걸쳐, 한국 잡지인 『한국논단』지에 국방대학교 교수인 김병렬(金柄烈)씨와 논쟁했을 때, 줄고 「다케시마가 한국령이라는 근거는 왜곡되어 있다」(『한국논단』, 1996년 5월호)와 「증거를 보이고 실증(實證)하라」(『한국논단』, 1996년 8월호), 「다케시마 문제의 문제점」(『한국논단』, 1998년 8월호)에서 언급하였으며, 「속(續) 다케시마 문제의 과제」(『현대 코리아』, 2005년 7, 8월호) 등에서 지적한 것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개찬이라는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고, 그 대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를 강조해, ‘보인다’는 것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는 증거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 반을 거쳐, 울릉도에서 ‘독도가시(可視)일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 결과, 울릉도에서는 56일, 독도가 보인다고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의 “멀리 바라다 보인다”를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로 해석하여,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한 것이다.

『독도 바로 알기』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본 근거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지리적 여건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 의거해서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의 “보인다”를,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해석하여, “오랜 전부터 선조가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한 것이다. 2016 년도판 『독도 바로 알기』(「독도의 위치와 영역」)에서는 ‘독도가시일수 조사’를 전제로 하여, 독도가 한국령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 독도가 보이지만, 일본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울릉군 석포(石圃)나 도동(道洞)의 독도 전망대 등 여러 곳에서 맑은 날에는 독도를 관측할 수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은 옛날부터 독도에 가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독도가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사실의 중요성」)

여기에는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이, “울릉도 주민들은 옛날부터 독도에 가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어, “독도가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보인다”만으로는, 이것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독도가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이었던 증명 또한 되지 않는다. 그것보다도 한국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을 중요시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다케시마 문제가 일어난 1950 년대부터 일본과 한국은 다음의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 해석을 둘러싼 분쟁으로 결말을 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이 현(縣)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분주) 두 섬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 활짝 갠 날에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이 분주를 “두 섬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갯 낱에는 서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읽고, 그 “볼 수가 있다”를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분주에서는 ‘서로’라고 읽을 만한 자구(字句)가 없다. 『독도 바로 알기』는 분주에 없는 ‘서로’를 자의적으로 보완하여, 본문에 있는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를 “서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읽게 한 것이다.

한편, ‘서로’를 보완하지 않고 분주를 해석한다면, “두 섬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 활짝 갯 낱에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두 문장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으며, 활짝 갯 낱에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활짝 갯 낱에는 바라다 볼 수 있다”는 어디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독도 바로 알기』가 “서로 볼 수가 있다”고 읽었던 것처럼, ‘서로’를 보완해서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보인다고 해석하여,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 이외에 없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보이는 우산도는 독도임에 틀림없다고 읽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를 조선반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해석하여, 우산도는 다케시마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일한 쌍방의 해석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폐색(閉塞)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촉탁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1966년, 계산식에 따라 다케시마를 “섬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2백미터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하여, 울릉도의 저지대에서 다케시마는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도 반론했다. 울릉도에서는 실제로 다케시마가 “보이기” 때문으로, 가와카미의 계산식에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와카미의 계산식이 재차 각광을 받게 된 것은 2005년 3월,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케시마 문제가 재연되자, 한국정부는 일본의 다케시마 연구를 비판할 표적이 되었을 때부터이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은 울릉도에서 ‘독도가시일정 조사’를 실시했고, 한국정부에서는 그 결과에 입각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의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관측 성과를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2010년 간행)로 출판하고, 이후 한국에서는 '독도가시일수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다케시마(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게 된 것이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 독도가 보이지만, 일본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가와카미 겐조의 계산식과 울릉도에서의 '독도가시일수 조사'는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의 분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 문헌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찬진(撰進, 임금께 글을 지어 올림))과 같은 지지(地志)의 경우, 편찬 방침이 된 '규식(規式, 편집방침)'에 따라 편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해석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 본문에,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이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하고, 뒤이어 분주가 계속되어 있으면, 으레 우산도와 무릉도에 관련한 기사가 분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분주 안에 우산도에 관한 기사를 발견한다면, 우산도가 어느 섬이었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더욱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저본 중 하나인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 서문에는, 경상도 감사 하인연(河演淵)이 '규식'에 관하여 "새로이 각 도(各道)에서 올린 규식으로 추천(推讚)하여 이문(移文, 공문서 일종)하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지지(地志) 편찬할 때에는, 미리 중앙정부가 정한 '규식'이 있고, 각 도에는 이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추찬'하여, 중앙정부에 '이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상도지리지』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저본 일부로 되어 있지만, 각 도에는 경상도와 마찬가지로, 지리지 편찬에 관한 '규식'이 서술되어 있었다. 『경상도지리지』에는 그러한 '규식'이 수록되어 있으며, 도서(島嶼)의 경우는 다음의 내용을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섬은 육지로부터 떨어진 수로의 거리로 나타내고, 또한 인민 거주 여부와 농작 유무를 쓰도록 규정한다. (諸島陸地相去水路息數, 及島中在前人民接居, 農作有無開寫事)

도서의 경우, '규식'에는 "모든 섬은 육지로부터 떨어진 수로의 거리"로 해서, 육지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수로에 의한 거리(息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규식'에 따라 『세종실록』 「지리지」의 "날씨가 맑으면 이내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를 해석하면, 활짝 갠 날에는, 육지 울진현으로부터 그 관할하는 무릉도가 "보인다"고 읽게 된다. 그것은 "날씨가 맑으면 이내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는 문장 중에, 거리에 관련된 기술은 "보인다" 외에 없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조선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육지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보인다"를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해석했지만, 그것은 '규식'의 존재를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시대 사회체제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郡縣制)였다. 그 때문에 지방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가 파견되어, 그 행정 단위인 군현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 때 필요한 것이 행정구역의 정세를 기록한 지지(地誌)이다. 『동국여지승람』 (1481년 성립)을 편찬한 서거정(徐居正)은 이를 "굳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도, 살펴봄에 마치 손바닥 보듯 환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그 수요에 맞게 편찬된 것으로, 그 속찬으로 편집된 것이 『동국여지승람』이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때에도 『지리지속찬사목(地理誌續撰事目)』이라는 '규식'에 준해 편찬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지리지속찬사목』에서는 도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섬이 본읍의 어느 방향, 수로 몇 리에 있는지, 육지(연안)로부터 본읍과의 거리는 얼마인지, 섬의 둘레와 거리, 그리고 전답의 수와 민가의 유무에 대해 적도록 규정한다. (海島 在本邑某方 水路幾里 自陸地去本邑幾里 四面周回 相距幾里 田畝幾結 民家有無)

『동국여지승람』의 경우도 섬에 관해서는 관할하는 관청에서 어느 방향에 있으며, 수로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고, 육지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리지속찬사목』과 『경상도지리지』에 기록된 '규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그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의 속찬으로 편찬된, 현존하는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을 1530년에 증보)의 '울진현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우산도와 울릉도 (분주) 두 섬은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세 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이내 봉우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울진현조』)에서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에서는 “보이는” 앞 경관이 기술되어 있다. ‘맑은 날’에는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이 역력히 “보이는” 것이다. 물론 여기 ‘봉우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은 울릉도에서 본 다케시마(독도)의 원경은 아니다. 암초에 불과한 다케시마에, 수목은 무성하지 않으며, 모래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리지속찬사목』(『육지(연안)로부터 본읍과의 거리는 얼마』)라는 규식에 따라 기술된, 육지에서 “보이는” 울릉도의 모습으로, 울릉도는 울창한 수목에 뒤덮여 있다. 이 사실은 육지에서 ‘수로 몇 리’라고 기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세종실록』「지리지」(『울진현조』)의 “보인다” 또한 울진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라고 읽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올바른 것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속편인 『여지도서(輿地圖書)』(1757년부터 1765년 사이에 성립)의 기사를 보면 명확하다. 『여지도서』(『삼척부(三陟府)조』)의 본문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있었던 우산도가 사라지고 울릉도만이 남아, 그 “역력히 보이는” 앞에는 ‘봉우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이 있다. 이것은 『여지도서』의 편자들도 “역력히 보인다”를,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던 것이다. 또한 19세기 지리 학문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울진현조』)에는 분주의 기술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즉 『대동지지』(『울진현조』)에서는 “울릉도는 (분주) 본현(本縣)에서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중략) 본현에서 맑은 날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마치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본현에서 맑은 날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마치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울진현에서 맑은 날,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 울릉도는 움직이는 구름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김정호의 『대동지지』(‘울진현조’)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기사를 답습하여, 그 “보이다”를 육지(울진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읽은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의 본문에 실린 우산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그 힌트는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의 분주 안에 있다. 왜냐하면 본문에 있고 분주가 있다면, 본문과 관련된 기사는 분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 중 “태조(太祖) 때, 유민(流民)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는 것을 듣다”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의 분주에 있는 “태종(太宗) 때, 유민(流民)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는 것을 듣다”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의 경우, ‘태종 때’로 해야 할 곳을 ‘태조 때’로 잘못 옮기고 있는데, 이는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유래하는 동일한 기사이다.

『태종실록』의 ‘17년 2월 임술조’에는 울릉도에 파견된 울릉도 안무사(按撫使, 조선시대의 임시관직)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되돌아오다”고 복명하며, 그 우산도에는 “집은 대략 15 가구이고, 남녀 합해서 86 명”이 살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이 때 울릉도에 파견된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되돌아오다”라는 복명 때문에, 처음 ‘울릉도 안무사’가 되었던 김인우는, 그 이후 ‘울릉우산 안무사’로 임명받게 되었다. 이것은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라는 또 다른 섬이 존재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산도에는 “집은 대략 15 가구이고, 남녀 합해서 86 명”이 살고, 울릉도에도 마찬가지로 ‘15 가구’(『태종실록』 16년 8월 경인조)가 입도(入島)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동일한 섬의 서로 다른 이름인지 아니면 두 섬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에는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한편, 분주에서는 ‘일설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본래 같은 섬’으로 후세 연구에 기대하고 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과 동시대에 편찬된 『고려사(高麗史)』(「지리지」)의



‘울진현조’에서도, 본문에는 울릉도 한 섬으로 하고, 분주에는 “한편으로 우산도, 무릉도는 본래 두 섬”으로 하여 판단을 피했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서는 조선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울릉도의 삼분의 이 정도 크기인 우산도를 그렸지만, 당연히 그 우산도는 실재하지 않는 섬이었다. 그 때문에 한백겸(韓百謙)은 『동국지리지』(1614년 성립)에서 울릉도를 우산도로 하고, 이맹휴도 『춘관지』(「울릉도 쟁계」)에서 우산도를 울릉도의 동일한 섬의 이명(異名)으로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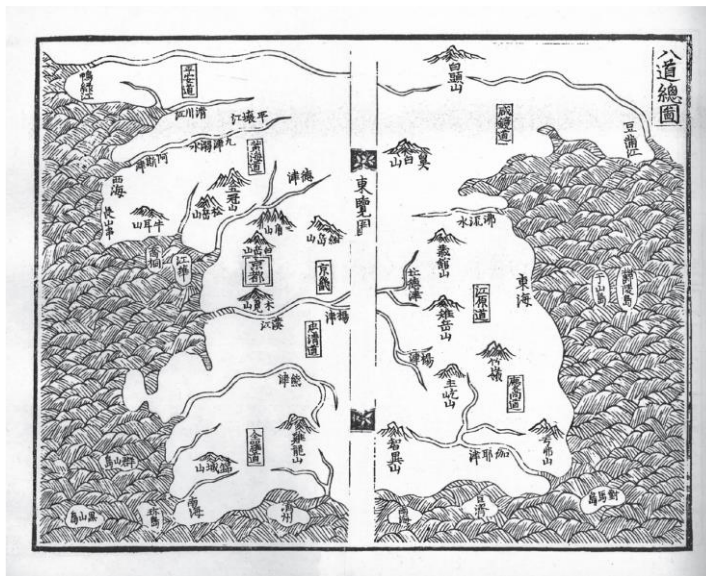


사진 ③ 「팔도총도」(『신증 동국여지승람』 수록)

1696년, 돛토리 번에 밀항한 안용복은 「팔도총도」에 유래한 지도를 지참하고, 그곳에 그려진 우산도를 ‘마쓰시마’라고 했다. 그 때문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술이 후세에 전해져,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우산은 즉 왜(倭)의 소위 마쓰시마이다”고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여지도서』과 김정호의 『대동지지』(‘울진현조’)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울진현조’)에서 유래하는 우산도는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안용복의 밀항사건을 계기로, 박석창이 그리게 한 「울릉도도형」에 의해 ‘소위 우산도’로 되었던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쪽 5 리’에 있는 죽서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해 첫머리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옛 기록이나 지도에 같이 나온다. 사료에 울릉도에서 우산도(독도)가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독도를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언제부터 독도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안용복은 일본에 두 번 건너가,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에 재차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독도 바로 알기』가 해설한 바와 같은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옛 기록이나 지도에 같이 나온” 사실도 없으며, “사료에 울릉도에서 우산도(독도)가 보인다고 기록”된 문헌도 없었다. 『독도 바로 알기』가 논거로 든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조’의 “보인다”는, 그 ‘규식’에 따라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문헌은 『독도 바로 알기』가 참고로 한 문헌 중에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안용복은 일본에 두 번” 건너간 기록은 남겨져 있다. 그러나 안용복이 공술한 것처럼, 돗토리 번의 번주와 교섭해서 울릉도와 독도(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 사실은 없었다. 그것은 안용복의 밀항 전말을 기록한 『이바나노쿠니에 조선인이 도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분고노카미님께 문의한 내용 및 회답, 기타 전말에 관한 각서』(동북아역사재단 『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I』 수록, 2012년 간행) 중,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의 지시에 따라 안용복을 추방했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사실과 다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제 5 절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

(1)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2016 년도판 『독도 바로 알기』(Ⅱ 전근대의 독도)에서는 일본의 고지도 또한 “다케시마는 한국령이다”고 한다고 해,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와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를 들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일본 고지도는, 대부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 밖으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는 조선 본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서 있거나, 조선 가까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 바로 알기』에 의하면, 일본의 고지도에서도 “독도는 조선 본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서 있거나, 조선 가까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것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했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든 것이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와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이다.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의 경우는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독도) 두 섬이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는 상태로 그려져 있어,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독도 바로 알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에서 다케시마 옆으로 “(다케시마)에서 고려(조선)을 바라보는 것은 운슈(雲州, 현재 시마네 현 지역)에서 오키섬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한 문언은, 일본의 서북(西北) 경계를 오키섬으로 기록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의 내용을 두 섬 옆에 그대로 적어 놓아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확실히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를 보면, 다케시마(울릉도)의 옆에는 『은주시청합기』(「국대기(國代記)」)의 문장에 유래하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부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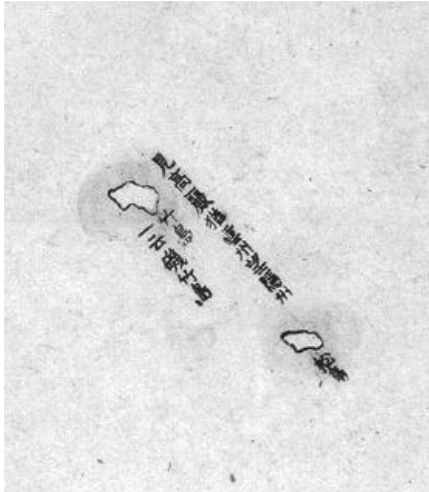


사진 ④ 나가쿠보 세키스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 부분 (개인 소장)



사진 ⑤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 부분 (개인 소장)

하지만 이 부기의 존재가 그대로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부기에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쓰여져 있기에,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은, 운슈에서 오키섬을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조선을 보고 있는 장소(울릉도)는 당연히 일본령이 된다. 게다가 오키섬으로부터는 조선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고려가 보인다”고 한 부기는 오히려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령으로 이해하고 있던 증거가 된다. 그것이 어째서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으로 기록한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을 두 섬 옆에 그대로 적은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일까?

그것은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를 작성한 나가쿠보 세키스이 자신이 두 섬을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도 막부는 1696년에 울릉도의 도해(渡海)를 금지하고,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했지만, 그러한 결정에 의구심을 품은 자가 있었다. 아오키 곤요(青木昆陽)는 『초려잡담(草廬雜談)』에서 “다케시마(竹嶋)는 예로부터 일본 섬이다”고 하여, “다케시마를 조선에게 주려고 하다니”, “유사(有司, 관리)의 잘못이 아니겠는가”고 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 또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주장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미토(水戸) 번이 편찬한 『대일본사(大日本史)』의 「지리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토 번사(藩士, 제후에 속하는 무사)인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대일본사』 편찬에 참여했으며,

「지리지」를 담당했다.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지리지」의 '오키국(隱岐國)조'에서 "이미 다케시마라고 말하거나 마쓰시마라고 말한다. 일본 영토인 것은 지자(智者)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하고 있다. 즉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에서,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은주시청합기』의 "견고려(見高麗), 여자운주망은주(如自雲州望隱州)"를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고 부기한 것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에 『은주시청합기』의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오키를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를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부기해 있다면, 사이토 호센(齊藤豊仙) 또한 울릉도를 일본의 서북 경계지로 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이토 호센은 『은주시청합기』의 「국대기」에서, 오키섬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오키섬의 서쪽 마을을 기점으로, 그 사방(四方)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오키를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는 울릉도에 붙여진 설명문의 일부분이다. 사이토 호센은 「국대기」의 전반 부분에서, 오키섬의 남쪽은 "운슈 미호세키(美穗關)에 이르기까지 35 리". 동남쪽 "하쿠슈(伯州) 아카사키우라(赤碕浦)에 이르기까지 40 리" 등으로 하고, 울릉도와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북(西北) 사이, 이틀하고 하룻밤 가면 마쓰시마가 있다. 또한 하루 거리에 다케시마가 있다. 이 두 섬은 무인도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오키를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즉 일본의 서북 땅, 이 주(此州)를 한계로 한다.

여기서 사이토 호센은 오키섬의 서북에 '마쓰시마'와 '다케시마'가 있고, 그곳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오키를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으며, 조선이 보인다. 그 때문에 조선이 보이는 이 섬은 일본의 서북 경계지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이 주(此州)'를 오키섬이라 해석하여, 『은주시청합기』의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오키를 바라다 보는 것과

같다”를 부기한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역 밖으로 표기”한 고지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울릉도 가까이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부기했던 것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어쩌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부기가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주(此州)’를 ‘오키섬’으로 한 나고야(名古屋) 대학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의 논리에 의거해,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케우치 사토시의 논리는 『은주시청합기』의 ‘모토야 촌(元谷村)조’에 “은주(오키섬)는 서북 끝의 땅(極地)”이라는 것에서, 이것을 근거로 「국대기」의 “일본의 서북 땅은 이 주를 한계로 삼는다”고 한 ‘이 주’도, ‘서북의 끝의 땅’인 오키섬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 일부러 든 의론이다. 사이토 호센이 「국대기」에서 “일본의 서북 땅, 이 주(此州)를 한계로 한다”고 한 것은 오키섬을 기점으로, 그 서북 방면에 있는 ‘이 주(此州)’를 북서 한계로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케우치 사토시가 근거로 든 “은주는 서북 끝의 땅”은 일본 본토로부터 봐서, 오키섬을 ‘서북 끝의 땅’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서북 땅’과 ‘은주는 서북 끝의 땅’은 일견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점이 오키섬과 일본 본토로 서로 다르다면, 그 앞에 있는 ‘이 주(此州)’ 또한 당연히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此州)’를 ‘오키섬’으로 한 것은, 이케우치 사토시의 궤변이다.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그곳에서 조선이 보이고, ‘일본의 서북 땅’의 “한계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키섬 서북에 위치하는 울릉도뿐이다.

게다가 이 주(此州)의 ‘주(州)’는 은주(隱州)의 주(州)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문(漢文) 표현에는 섬(島)을 주(州)라고도 표기하기 때문이다. 안용복의 밀항사건 이후, 조선에서는 안용복을 ‘영웅’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니, 『춘관지』를 편찬한 이맹휴의 아버지인 이익(李翼)은, 안용복을 평하길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一州)의 땅을 회복했다”(『성호사설(星湖僿說)』 ‘울릉도조’)라고 했다. 여기서 ‘일 주(一州)’는 울릉도를 말한다.

사이토 호센이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오키를 바라다 보는 것과 같으며, 그렇다면 즉 일본의 서북 땅, 이 주(此州)를 한계로 한다”(현대역으로, 조선을 보는 것은 이즈모(出雲)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서북 땅을 이 주(州)를 경계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주(此州)를 한계로 한다”로 한 근거는 조선이 보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이 보이는 섬은 울릉도이며, 이케우치 사토시가 말한 오키섬이 아니다.

『독도 바로 알기』가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문헌 중, 독도에 관해 기술된 최초의 기록으로, 일본의 서북 경계를 오키섬이라 기술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이 주(此州)’를 오키섬으로 곡해한 이케우치 사토시의 주장을 기화(奇貨)로 한 것이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다케시마(울릉도)과 마쓰시마(다케시마)를 그리고, 울릉도 옆에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부기했던 것은, 나가쿠보 세키스이 또한 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의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에 채색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문제삼아,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은 문헌 비판을 소홀히 한 해석이라 하겠다.

『독도 바로 알기』를 비롯해, 한국의 다케시마 연구에는 문헌 비판을 소홀히 하고, 문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장에 언급할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서도 볼 수 있다. 하야시 시헤이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부기한 다케시마(竹嶋)에, 새로이 ‘조선의 것’이라 가필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선의 것’ 부기가 있는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는 대부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역 밖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조선의 것’이란 어느 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2)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 하야시 시헤이가 저술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안에 있는 5 장의 부속지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지도의 동해 부분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그 우측에 이름 없는 섬 하나가 조선 본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그려져, '조선의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여기 설명문에서 “『삼국통람도설』 안에 있는 5 장의 부속지도 가운데 하나”라고 된 지도가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이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이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의 동해(일본해) 부분에, 조선반도와 같은 노란색으로 채색된 울릉도와 소도(小島) 하나가 울릉도 우측 위에 그려져, 울릉도에는 '조선의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는 일본이 울릉도와 소도를 조선령으로 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는 에조(蝦夷, 현 홋카이도) 땅에 러시아가 접근해, 해상 방위 의식이 높아지던 중, 유사시를 위해 일본과 서로 맞닿는 지역과의 지리적 관계를 나타낸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긴 하야시 시헤이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래서 하야시 시헤이는 “지금 새로이 일본을 중심으로 조선, 류큐(琉球, 현 오키나와), 에조 및 오가사와라(小笠原) 섬 등의 지도를 만드는 게 자신의 작은 뜻”으로 여겨,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조선국지도(朝鮮國之圖)』(「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 『류큐국지도(琉球國之圖)』, 『에조국지도(蝦夷國之圖)』, 『무인도지도(無人島之圖)』 등의 지도를 서로 연결하여, 작도한 것이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이다. 이 때 사용된 5 장의 지도는 모두가 『삼국통람도설』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한국이 주목한 것은, 다케시마(울릉도)에 '조선의 것'이란 부기가 있고, 울릉도 우측 위에 소도가 하나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부



사람은 울릉도의 오른쪽 위에 있는 소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로 하고, 그곳에 '조선의 것'으로 한 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한 일본의 고지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는, 애초부터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그려져 있던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를 그리지 않았다.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작도할 때, 사이토 호센의 『은주시청합기』를 토대로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그렸다. 『은주시청합기』의 「국대기」에는 “서북(西北) 사이, 이틀하고 하룻밤 가면 마쓰시마가 있다. 또한 하루 거리에 다케시마가 있다”고 한 것에서,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그 기술을 따라 오키섬의 '서북 사이'(서북 방향), 어림잡아 '이틀하고 하룻밤'이 걸린 곳에 마쓰시마(다케시마)와 그곳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다케시마(울릉도)를 간격 두고 그렸다.

그러나 하야시 시헤이는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중심으로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작도했지만,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는 그리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은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가 완성되기 3년 전, 하야시 시헤이가 시험삼아 만든 『일본원근외국지도(日本遠近外國之圖)』(센다이(仙台) 시립박물관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원근외국지도』에서는 '대나무 섬'으로 표기된 다케시마(울릉도)가 한 섬만 그려져, 그곳에 '조선의 것'이라는 부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1696년 1월,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연유이다.

더욱이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그려진 울릉도는 한 섬이었지만,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 그려진 울릉도에는, 그 우측 위에 새로이 소도가 한 섬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일본원근외국지도』로부터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완성한 과정에서, 하야시 시헤이가 울릉도 우측 위에 소도가 그려진 울릉도 그림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하야시 시헤이 스스로 『삼국통람도설』 중 “조선 지도는 조선 역관이 전한 것과 키요(崎陽, 현 나가사키) 사람 나라바야시(檜林)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가 있다”라고 했으며, 조선 관련해서는 두 종류의 지도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조선의 지도'와 '나라바야시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이며, 그 중 “조선 지도는 조선 역관이 전한 것”으로 만든 지도가 『삼국통람도설』에 수록된

『조선국지도』(「조선팔도지도」)이다. 하야시 시헤이는 『일본원근외국지도』의 식어(識語, 사본 등 책의 내력이나 베낀 날짜 따위를 써넣은 기록)에서도 “조선반도 전도(全圖)는 쓰시마(對馬) 번의 역관이 전한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의 「조선국」은 『삼국통람도설』에 수록된 『조선국지도』(「조선팔도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의 울릉도에 소도가 그려지게 되었던 것은 『삼국통람도설』 중에서 “키요 사람 나라바야시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가 있다”라고 말한 나라바야시 소장의 ‘진귀한 지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3년에 한 번, 울릉도에 수토사가 파견되어, 울릉도 도형이 『울릉도도형』으로 그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울릉도도형』이 이미 전술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으로, 그곳에는 울릉도 동쪽 2킬로 정도에 ‘이른바 우산국’이라 표기한 소도가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울릉도도형』은 이후에 울릉도 지도에 답습되어, 『해국도지』, 『여지지』, 『광여도』 등에서도, 박석창이 ‘이른바 우산도’라고 표기한 소도를 ‘우산도’라고 하여, ‘이른바 우산도’로써 울릉도 우측 위 혹은 우측에 소도 한 섬을 그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소도는 현재의 ‘죽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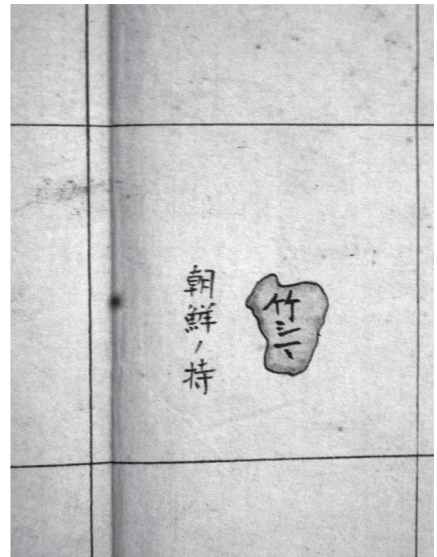


사진 ⑥ 하야시 시헤이 『일본원근외국지도』 부분  
(센다이 시립박물관 소장)

이와 같이 하야시 시헤이가 『삼국통람도설』 중에 “키요 사람 나라바야시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라고 한 진귀한 지도는, 여기 『울릉도도형』의 계통을 잇는 울릉도 지도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하야시 시헤이 자신이 『일본원근외국지도』에는 처음부터 다케시마(독도)를 그린 것이 아니며, 『일본원근외국지도』를 바탕으로 작도한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울릉도뿐이다. 이것은 하야시 시헤이가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작도할 때, 보다 정확한 울릉도 지도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하야시 시헤이가 나가사키로 유학갔을 때는 이미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울릉도 우측 혹은 우측 위에 소도를 그린 울릉도 지도가 존재해 있었다. 그것이 “키요 사람 나라바야시가 소장한 진귀한 지도가 있다”라고 한 나라바야시 소장의 ‘진귀한 지도’였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야시 시헤이는 『일본원근외국지도』와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에서 처음부터 현재의 다케시마를 그리지 않았던 사실이다. 게다가 하야시 시헤이가 소도를 그린 장소는 ‘조선의 것’으로 한 울릉도 우측 위이다. 그 소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로 한 것은 『일본원근외국지도』의 존재를 무시한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의 자의적 해석이라 하겠다.

#### 제 6 절 태정관(太政官) 지령과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外一島)’

2016 년도판 『독도 바로 알기』의 「II 근현대의 독도」에서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태정관 지령”으로, 1877 년 3 월 29 일,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아 둘 것”이라고 한 태정관 지령을 근거로, 일본정부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1876 년(메이지 9 년) 10 월 5 일, 메이지 정부의 지리국(地理寮)에서 시마네 현의 지적편제계(地籍編製係)에 대해,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구기(舊記) 옛 지도 등을 제출하도록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 발단이다. 이에 관해서 시마네 현은 10 월 16 일,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와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図)』를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앞으로 제출했다. 내무성에서는 이것을 다시 태정관의 판단을 청했고, 태정관이 내린 결론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였다.

그것을 한국정부에서는 러일전쟁이 한창인 1905 년, 한번 태정관 지령으로 일본령이 아니라고 언급한 외 일도(外一島, 마쓰시마)를 ‘무주지(無主地)’로 ‘선점’하여, 일본령에 편입했다고 해서 문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태정관이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한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내무성은 시마네 현이 제출한 기록과 지도 그리고 17 세기 말 조선과 교환한 문서 등 울릉도·독도 관계 자료를 5 개월 남짓 조사·검토한 후, 두 섬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으나, 영토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태정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태정관은 1877 년 3 월 29 일,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한 건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아 둘 것”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이 지령은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이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태정관의 이 지령에 나온 ‘다케시마 외 일도’의 한 섬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이소다케시마 외 일도는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도가 마쓰시마 즉 독도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독도 바로 알기』가 ‘다케시마 외 일도’의 “일도가 마쓰시마 즉 독도이다”라고 한 근거는 ‘태정관 지령’과 시마네 현이 제출한 『이소다케시마 약도』이다. 확실한 문헌 비판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한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그려진 이소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된다. 하지만 그 전에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일도’로 인식한 도서(島嶼)가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그려진 도서와 같은 것인지 어떤지, 문헌 비판을 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1905 년(메이지 38 년), 다케시마가 새로운 섬(新島)으로서 시마네 현에 편입되었을 때, 오키 도사(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가 그 새로운 섬에 다케시마라고 명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는 것도 사실은 마쓰시마를 말하는 것으로, 해도(海圖)를 보아도 분명하고 명백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이 새로운 섬을 종래의 오칭(誤稱)인 명칭을 전용하여, 다케시마라는 통칭을 새로운 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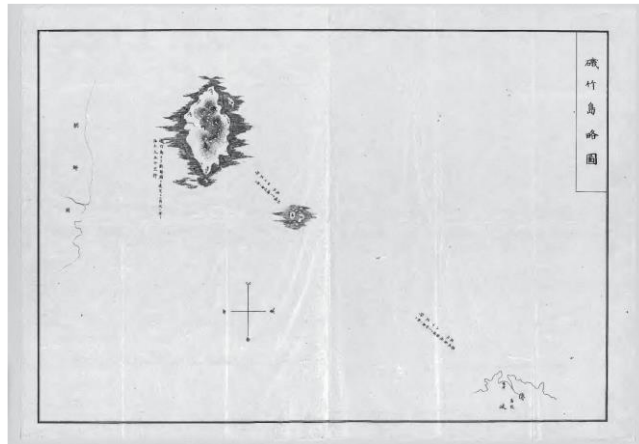


사진 ⑦ 『이소다케시마 약도』(국립공문서관 소장)

오키 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새로운 섬에 본래의 마쓰시마 이름을 붙여야 하지만, 이미 해도 등에는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으니, 새로이 편입되는 섬에도 울릉도의 호칭이었던 다케시마를 사용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오키 도사 히가시 분스케에 의하면, 본래 울릉도라는 통칭은 다케시마였지만, 해도 등에서는 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것은 히가시 분스케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는 것도 사실은 마쓰시마를 말하는 것으로"라고 한 것과 같이, 시볼트(Siebold, 1796-1866)가 『일본전도(日本全圖)』(1840년)에서 아르고노트섬을 다케시마로, 다줄레섬을 마쓰시마로 했을 때,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시볼트는, 귀국할 때 일본 지도 등도 가지고 갔다. 시볼트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일본전도』를 작성했는데, 이 때 마쓰시마의 위치를 '북위 37도 25분 · 동경 130도 56분'으로 하고 있다. 이 경위도(度)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 울릉도로, 동경 131도 55분인 현재 다케시마가 아니다. 또한 시볼트의 『일본전도』에서는 다케시마로 된 아르고노트섬의 경위도를 '북위 37도 52분 · 동경 129도 20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 장소에 도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볼트는 다케시마의 호칭이었던 마쓰시마를, 울릉도(다줄레섬)에 붙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아 둘 것”으로 했을 때, 서양전래 지도나 해도를 참고했다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시마네 현이 제출한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그려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와는 달리, 아르고노트섬(다케시마)와 다즐레섬(울릉도)이었던 것이 된다. 더욱이 시볼트가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아르고노트섬은, 한국 이진명(李鎭明) 교수의 개정증보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2005 년 간행)에 수록된 영국해군 해도 『일본-일본, 규슈, 시코쿠 및 한국 일부』 (1863 년판)에서는 다케시마가 파선(破線)으로 그려져, “다케시마 혹은 아르고노트섬”이라고 한 후에 이어서 PD 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PD(Position Doubtful)는 소재 불명의 의미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다케시마(아르고노트섬)은 영국해군 해도 『일본-일본, 규슈, 시코쿠 및 한국 일부』(1876 년판)에서는 삭제되고, 마쓰시마(울릉도)와 리앙쿠르 열암(列岩, 현재의 다케시마)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1849 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현재의 다케시마를 발견하여, 리앙쿠르 열암으로 해도 및 지도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사실 ‘태정관 지령’이 하달된 전 해(1876 년) 3 월, 일본 해군성 수로국제도과장(水路局製圖課長) 직무대리인 오지리 히데카쓰(大後秀勝)가 제작한 『대일본해육전도와 연접 조선전국 및 사할린(大日本海陸全圖聯接朝鮮全國竝樺太)』(이하, 『대일본해육전도(大日本海陸全圖)』)에서는 ‘마쓰시마’(울릉도)와 러시아식 명칭인 ‘올리부차’(서도(西島)) · ‘메넬라이’(동도(東島))라고 표기된 현재의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으나, 아르고노트섬(다케시마)는 그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1876 년(메이지 9 년) 12 월, 일본해군 수로국에서는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간행했다. 이 『조선동해안도』에서는 울릉도에 마쓰시마라고 표기하고, 현재의 다케시마를 ‘올리부차’, ‘메넬라이’로 하고 있다. 『조선동해안도』의 ‘주의’에 의하면, “이 섬은 1857 년 러시아 군함사관 그레이 로프가 측량”한 것이며, “메넬라이는 1854 년 군함 올리부차 호가 발견한 것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해군이 제작한 지도를 토대로 한 것이다.

1877 년(메이지 10 년), 태정관 지령에서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했을 당시, 외래지도 및 해도에는 다케시마(아르고노트섬)과 마쓰시마(울릉도)를 그린 것 **그리고**

마쓰시마(울릉도)와 리양쿠르 열암(현재의 다케시마)이 그려진 2 종류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태정관이 전자(前者)의 지도 및 해도에 의거해서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판단했다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일도(마쓰시마)는 울릉도가 된다.

『독도 바로 알기』는 그러한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 내무성이 “독도관계 자료를 5 개월에 걸쳐서 조사·검토한 후, 두 개의 섬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태정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던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문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태정관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일본에 내각제도가 성립한 것은 1885 년으로, 당시 메이지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된 태정관은 과도적 행정조직이었다. 그 때문에 태정관 지령이라 하더라도, 시마네 현에 품의를 내린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 이전에는, “병원에 있는 약품검사기관(司藥場)으로 인도 의견”이나 그 이후에 “구 신관(舊神官) 호적을 만드는 의견”으로 하는 ‘품의’를 내리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태정관을 최고행정기관으로 특필하고 있지만, 그 지령 내용은 잡다한 것들이었다.

사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내무성이 “울릉도·독도관계 자료를 5 개월에 걸쳐서 조사·검토했다”고 했지만, ‘외 일도’라고 된 마쓰시마는 3 년 후에 울릉도로 되었다. 그것은 1880 년(메이지 13 년) 9 월 13 일, 아마기함(天城艦)이 마쓰시마를 측량하고, 마쓰시마가 울릉도이었던 것을 명백히 한 것에 의한다. 한편 다케시마는 울릉도 동쪽 2 킬로에 있는 죽서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881 년(메이지 14 년) 8 월, 정부의 명령을 받은 외무성 촉탁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다케시마 고증(竹島考證)』에서 밝히고 있다. 즉 ‘외 일도’의 마쓰시마는 울릉도로 하고, 다케시마는 울릉도 동쪽 2 킬로에 있는 죽서로 한 것이다.

한국 연구자 중에는 수목(樹木)이 나지 않는 다케시마에, 다케시마라고 명명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에도시대에 마쓰시마로 불리던 다케시마를, 울릉도 호칭이었던 다케시마로 한 이유와 관련해서, 오키 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통칭하는 것도 사실은 마쓰시마를 말하는 것으로, 해도(海圖)를 보아도 분명하고 명백하다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외래 해도나 지도에는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기했기 때문에, 일찍이

울릉도 호칭이었던 다케시마를 새로운 섬의 명칭으로 한 것이다. 그것을 『독도 바로 알기』(「러일전쟁과 일본의 독도침탈」)에서는 태정관 지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1877 년에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 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 보자.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일본은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했지만,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 '무주지'로서 일본령으로 해 버렸다는 역사인식이다. 한국에서는 다케시마가 시마네 현으로 편입되기 5 년 전, 독도(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었다는 역사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인식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다음 장의 「칙령 제 41 호」이다.

제 7 절 「칙령 제 41 호(勅令第四十一号)」의 석도(石島)에 대해서

한국 내에는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것에 대항해서, 10 월 25 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지방자치체가 있다. 10 월 25 일은 대한제국이 1900 년 10 월 25 일, 「칙령 제 41 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全島) 및 다케시마, 석도"로 정한 날이다. 한국정부에서는 행정구역 중 '석도'를 현재 독도(다케시마)로 해석하고, 독도는 일본이 일본령으로 한 5 년이나 이전에 한국령으로 한 증거로 들고 있다.

한국에서 본다면, 독도가 한국령이 된 것은 일본보다 5 년이나 빠르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5 년 후인 1910 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에서는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의 조선침탈의 최초 희생물로 삼는 것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독도를 '독립의 상징', '민족의 자존심' 등으로 하여, 다케시마 문제를 '역사문제'로 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시된 것이 「칙령 제 41 호」 중에 나타난 석도이다. 2016 년판 『독도 바로 알기』(「대한제국 칙령 제 41 호의 석도」)에서는 석도를 독도로 간주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 호」에 나온 울릉 전도는 울릉도 본섬을 나타낸다. 다케시마는 울릉도 옆의 '죽서'이며,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당시 울릉도를 자주 왕래하던 전라도 사람들은 독도를 '독섬'이라고 불렀는데, '독(獨)'은 '돌(石)'의 전라도 방언이다. 즉 '독섬(獨島)'은 곧 '돌섬(石島)'이다. 돌섬은 의미에 따라 한자로 표기하면 '석도(石島)'가 되고, '독섬'을 소리에 따라 한자로 표기하면 '독도'가 된다. 따라서 '돌섬', '독섬', '석도'는 모두 '독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칙령 제 41 호」 중에 있는 석도를 독도로 한 전제에 서서, 그것을 어학적 견지에서 연역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로서, 한국에서 다케시마를 독도로 호칭하게 된 것은 1904 년 9 월,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쓰고, 일본 어민은 리앙코섬이라 부른다"고 한 일본군함 니이다카(新高) 보고가 처음 사례이다. 시계열(時系列), 어떤 시각적 변화를 관찰하여 얻은 값의 계열)적으로 보아, 석도가 등장한 것은 1900 년 10 월 「칙령 제 41 호」이다. 한편, 독도 호칭은 1904 년경부터 시작된다. 독도 호칭이 4 년 전 「칙령 제 41 호」에 영향을 주어, 독도가 석도가 되었다고 하는 논리에는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울릉도 도민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울릉도 인근에 오징어 어장이 발견된 1903 년 이후의 일로, 그 이전의 울릉도 어민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한 울릉도 도민이 독도를 '생활권'으로 했다는 것은 역지가 있다.

이것을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자주 왕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칙령 제 41 호」의 석도를 독도로 한 것은 무모하다. 『독도 바로 알기』에는 "당시 울릉도를 자주 왕래하던 전라도 사람들은 독도를 '독섬'이라고 불렀다"고 했지만, 그것은 독도 호칭의 설명이며, '독도'가 석도였다는 증거로는 될 수 없다. 더욱이 「칙령 제 41 호」에서 울릉군 관할 지역이 '울릉 전도와 다케시마,

석도'로 정해진 이전에도, 조선시대부터 승계된 울릉도 강역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무시하고, 어학적인 설명만으로 석도를 독도로 하는 것은 독단이라 하겠다.

울릉도 강역은 안용복의 밀항사건을 계기로 수토사가 울릉도에 파견되어, 그들이 작도한 『울릉도도형』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 원형이 된 것이 1711년에 박석창이 화가에게 작도시킨 『울릉도도형』이다. 박석창은 『울릉도도형』에 울릉도 강역을 '종(縱)으로 80리, 횡(橫)으로 50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울릉도 한 섬이며, 그 『울릉도도형』에는 울릉도에서 90킬로가깝게나 떨어진 현재의 다케시마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울릉도 강역은, 1882년 고종으로부터 울릉도 답사를 하달받은 검찰사 이규원(李奎遠)이 그리게 한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규원은 울릉도 동서를 '60리', 남북을 '50리'로 하고, 울릉도를 한 섬으로 보고 있었다.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는 박석창이 '이른바 우산도'로 한 소도를 '죽도(竹島)라고 하고, 울릉도 우측 위에는 '섬목(島項)'을 그려, 그것을 인근 소도로 보고 있다.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 주변을 그리게 한 『울릉도외도』에도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으며, 독도를 울릉도 강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다.

『독도 바로 알기』가 근거로 제시한 「칙령 제 41호」가 공포하게 된 것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에 의한 벌목 등이 이어져,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일한(日韓) 합동에 의한 울릉도 시찰이 행하여 졌다. 즉 대한제국에서는 내부시찰관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에 파견하고, 일본정부에서는 부산영사관 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가 동행했다. 조사는 1900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었고, 이 때 아카쓰카 쇼스케의 복명서인 『울릉도산림조사개황(鬱陵島山林調査概況)』에는 울릉도 강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울릉도는 한국 강원도에 부속된 도서로, 마쓰시마 또는 다케시마라고 칭한다. (분주) 동경 130도 82분 2초, 북위 37도 5분, (중략) 동서 약 6리 이상, 남북 약 4리 이상, 주변 약 20리.

이것은 명확히 울릉도 한 섬이다. 더욱이 아카쓰카 쇼스케의 『울릉도산림조사개황』에는 울릉도 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지도에는 울릉도 본도 외에 부속 도서로 '다케시마(竹島)', '섬목(島牧)', '공도(空島)' 세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세 섬은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 그려진 다케시마(죽도)와 섬목(島項), 공암(孔岩)이다. 그 중, 섬목이 '島牧(섬목)'으로 표기된 것은 섬목을 한국어 발음에 맞춰,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도'도 마찬가지로 공암을 섬으로 보고 판단하여, 한국어 발음에 따라 '空(공)島'로 표기한 것이다. 아카쓰카 쇼스케가 제출한 울릉도지도는 수토사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을 비롯하여, 이규원에서 완성한 『울릉도외도』를 답습하고 있다.

이처럼 아카쓰카 쇼스케가 나타낸 울릉도 강역은, 시찰위원인 우용정이 보고한 울릉도 강역과 겹친다. 「칙령 제 41 호」가 공포된 것은 이러한 우용정의 보고를 받아,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가 1900년 10월 24일, "울릉도를 울도(鬱島)이라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請議書)"를 의정부 회의에 제출한 것에 의한다. 이 『청의서』에도 울릉도 강역은 "해당 섬 지방은 종(縱) 80 리이고, 횡(橫) 50 리"라고 명기되어 있다. 『청의서』 중, 울릉도 강역을 '종 80 리이고, 횡 50 리'라고 한 숫자는 1711년에 수토사 박석창이 작도한 『울릉도도형』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와 같다. 이 사실은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울릉군 관할 구역인 '울릉 전도와 다케시마, 석도'에는 독도(다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시찰위원 우용정이 울릉도에 파견되기 전 해, 대한제국에서는 현채(玄采)가 역집(譯輯)한 『대한지지(大韓地誌)』(1899년)가 간행되었는데, 그곳에는 대한제국 강역을 "동경 124도 30분을 시작으로 130도 35분에 이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제국 강역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 다케시마(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칙령 제 41 호」에서 울릉군 관할 지역으로 된 다케시마와 석도는, 울릉도의 어느 소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다시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와 그 복명서인 『계초본(啓草本)』 그리고 이규원 자신이 쓴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에서 확인해 보면, 울릉도 부속에는 다케시마(죽도)와 섬목 두 섬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 두 섬 중, 다케시마(죽도)는 1711년 수토사 박석창이 그리게 한 『울릉도도형』으로 '이른바 우산도'라고

부기된 죽서이다. 그러면 울릉군 관할 지역으로 된 석도는, 이규원이 『울릉도검찰일기』 등에서 ‘단지 대나무 밭이 있을 뿐’이라고 한 섬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규원이 울릉도 동쪽에 있는 소도를 섬목으로 명명한 것은, 그 소도가 “모양이 누워있는 소와 같다”고 한 것처럼, 그 모양이 누운 소와 같이 보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한 섬목은 해도 306 호 「죽변만지수원단(竹邊灣至水源端)」에서 서목섬(鼠項島)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영문표기로 [So moku Somu]라고 그 읽는 법이 쓰여 있다. 이것을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소의 목(항(項)=목덜미) 섬’의 의미가 된다. 서목(鼠項)은 한국어 발음의 ‘소의 목(항=목덜미)’를 한자로 차자(借字, 음과 훈을 빌려다 쓴 글자)한 것으로, 한자음이 아니다.

하지만 「칙령 제 41 호」에서 울릉군 관할 지역으로 된 ‘울릉 전도와 다케시마, 석도’로 보면, 어느 것이나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울릉 전도와 다케시마는 원래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섬목(서목섬)은 한국어 발음을 한자로 차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서목섬의 서목을 한자음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반절(反切, 한자음을 표시할 때, 다른 한자 둘을 합쳐서 하는 방법) 차자로 읽어, 하나의 음(한자음)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반절 차자로 서목섬을 읽으면, 석도([Soku=石] 도)가 되는 것이다.

【차자는 두 자(字)를 쓰고 반절하여, 하나의 음으로 읽게 하는 방법으로, 서목의 서(So)의 처음 모음 o 과, 목(moku)의 처음 자음 m 을 뺀다. 그러면 서목(Somoku)에서 om 이 없어져, Soku(석)이 되고, 서목은 한자음 ‘석’이 된다】

「칙령 제 41 호」에서 울릉군 관할 지역을 ‘울릉 전도와 다케시마, 석도’라고 할 때, 한국어 발음에서 표기된 서목을 한자음으로 고쳐, 한자음의 석도가 된 것이다. 한국의 다케시마 연구에서는 이러한 섬목(島項)을 굳이 ‘도항’이라 한자음으로 읽는 연구자가 있지만, 그래서 섬목이 석도였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과 같다. 또한 섬목을 일본 표기인 관음도(觀音島)로 해서, 섬목과 석도와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하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칙령 제 41 호」가 공포된 당시, 島項이 '섬목'으로 호칭되었던 것은 아카쓰카 쇼스케가 울릉도 지도에서 島牧(섬목)이라 표기한 것에서도 명백하다. 「칙령 제 41 호」의 울릉군 행정구역에 석도가 있었던 것은 한국어 발음에서 표기된 섬목(서목섬)을 반절 차자로 읽고, 한자음으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칙령 제 41 호」의 울릉군 행정구역에는 다케시마(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석도를 독도로 하여, 독도를 한국령으로 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사실은 한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독도 바로 알기』의 2016 년판까지는 “독(獨)은 돌(石)의 전라도 방언이다”, “따라서 돌섬(石의 島), ‘독섬(獨島), ‘석도(石島)’는 모두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 등 주장하고 있지만, 2017 년 개정판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그 설명이 삭제되어 있다.

메이지 정부는 1905 년(메이지 38 년) 1 월 28 일,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하고, 내무대신은 그 취지를 시마네 현 지사에게 훈시했다. 시마네 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키치(松永武吉)는 각의 결정과 내무대신 훈령에 근거하여, 2 월 22 일 「시마네 현 고지 제 40 호(島根県告示第四〇号)」에서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했다. 이 때 메이지 정부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로 인정해 이를 일본 소속”으로 했던 것이다.

한국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칙령 제 41 호」에 나타난 행정구역 중 석도를 독도로 하고, 독도는 1900 년부터 한국령이 되었다고 해 왔다. 하지만 그 석도는 이규원이 『울릉도검찰일기』 중에서 “모양이 누워있는 소와 같다”고 한 섬목이었던 만큼, 「칙령 제 41 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령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1952 년 1 월 18 일, ‘이승만 라인’을 선언하고, 독도를 한국령으로 해 버렸다. 그 근거로 2016 년판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나 갈 무렵, 연합국은 일본이 전쟁 전에 폭력으로 침탈한 지역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지역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2017 년판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전후 연합국은 독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제 2 차 세계 대전이 연합군의 우세로 접어든 1943 년 11 월, 미국 · 영국 · 중국 정상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다. 카이로 회담에는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군의 기본 방침과 한국의 독립 문제가 언급되었다. 3 개국 정상(루즈벨트 · 처칠 · 장제스)가 합의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하며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로서 지금까지 언급해 온 바와 같이, 다케시마는 한국령이었던 적이 없다. 따라서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훔쳐던”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케시마는 한국이 “폭력 및 탐욕으로 약취한” 일본 영토이다.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개발한 『독도 바로 알기』는 자신의 침탈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교재였던 것이다.

맺는 말

이상과 같이, 다케시마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논해 본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논거로 제시한 문헌이나 고지도에는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국의 독도교육에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허구의 역사를 가르쳤으며, 그것이 ‘역사인식’이 되어 반일감정을 증폭시켜 왔던 것이다.

일한 두 나라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가지 않는 한, 상호 불신 관계는 풀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과거 역사를 자신만의 ‘역사인식’으로 문제시하는 한국정부와 과거 역사에 무관심한 일본정부라는, 서로 다른 사회기반에서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화보다도 자신의 정당화를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역사문제가

빠도 박도 못할 정도로 커지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인 적이 없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사회체질을 가진 한국과 오랫동안 지방분권적 사회체제를 유지해 온 일본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를 다룰 때, 과거 역사를 '역사인식문제'로 생각하는 한국의 역사적 특질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론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국에는 있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사령탑의 존재이다.

일본과 한국은 좁은 시야를 넓히고, 서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과거 역사를 검증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역사인식'으로 서술된 『독도 바로 알기』를 검증해 나간다면, 그 이유는 저절로 명확해 질 것이다.

머지않아, 일본에서도 다케시마 문제가 학습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를 기회로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특질을 검토하면서, 상호 이해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본서가 이러한 대화의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 【저자 프로필】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1950 년 나가노 현(長野縣) 생. 국학원(國學院)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3 년 한국 삼성종합연수원 주임강사 및 시립인천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98 년 일본 귀국. 다음 해 다쿠쇼쿠(拓植)대학 국제개발연구소 교수, 2000 년 동(同) 대학 국제개발학부 아시아 태평양학과 교수에 취임. 현재, 국제학부 국제학과 교수.

전공은 일본사. 제 1 기 ~ 제 4 기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좌장. 전(前) Web 다케시마 문제연구소 소장. 저서로는 『일한 · 역사극복에의 길(日韓 · 歴史克服への道)』(전전사(展転社)), 『다케시마는 일한(日韓) 어느 쪽 것인가?(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문춘신서(文春新書)) 외 다수.